

# 공 화 국 의 전 승 력 사 는 영 원 할 것 이 다

( 전 호 에서 계 속 )

## 전승의 력사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나는 사실 북에 절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간 사람이 아니었다. 알고싶은것을 끝까지 알아야 하고 묻고싶은것은 끝까지 물어야 했다. 그래서 공화국의 전승의 결정적힘이라고 하는 일심단결, 민중의 정신력발현에 대한 서방세계의 《주장》을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로 했다.

평양교려호텔에서 한 청년에게 제기한 질문: 《공화국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체라고 하는데 북민중은 평도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서방세계에서는 북의 체제를 부정하고있다.

대답: 《서방에서 온갖 험담을 하고 있는줄 알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평도자와 인민의 관계는 북중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라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한생 제 마음쓰는것이 양육과 치료, 교육이며 출가후 집을 마련하여주는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다 해주고있지 않느냐. 자식이 태어나면 탁아소, 유치원을 거쳐 12년동안 무료로 교육을 시킨다. 대학 까지도 마찬가지다. 병나면 치료도 무상이다. 가정을 이루면 집도 무상으로 준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실현시켜 주신분이 님이시니 우리의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시고 변함없이 빛내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아버지이시라고 부른다. 다른 나라에도 평도자가 있지만 이렇게 정책을 세우고 실현시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선생이 한번 대답해보라.

물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직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공화국주민들은 그분을 만나면 열광한다. 왜 그런가?》

대답: 《우리의 원수님 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과 사상도 평도도 풍모도 꼭 같은분입니다. 조국과 인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너무나 도와하십니다. TV를 보면 잘 알게 될것이다.》

물음: 《공화국의 실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미국에서부터 27시간을 비행기타고, 차타고 왔다. 그래서 나는 TV에 흥미가 없다.》

대답: 《알만 하다. 선생은 그것을 모두 선전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한가지만 말하겠다. 우리의 원수님께서 최전연의 어느 한 구분대를 찾으시어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병사들을 부르시어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집체사진이 아니라 수심병의 매 병사들을 모두 곁에 세우시고 단독사진을 찍어주시었다. 거기에 걸린 시간은 무려 1시간정도였다. 일국의 최고사령관이 평범한 전사들과 그렇게 혈연적관계를 맺고 친부초처럼 사랑을 부여준 례

가 세계군력사에 언제 있었는가.

과도사나운 섬초소에 작은 목선을 타고가기도 하고 허리치는 목숨에 뛰어들어 만세를 부르는 병사들을 보며 눈물을 적시기도 하시는데는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왜 원수님을 따르지 않겠는가.》

나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자료를 매우 관심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료들과 관련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젊으시었지만 매우 로련하고 세련된 평도자이다.

그분은 최첨단과학지식경계와 선군정치를 선호하는 한편 외교, 건축, 환경, 예술 등 모든 분야에 막힘이 없는 실력을 과시하며 과격행보를 이어가고계신다.

그분의 군대와 민중에 대한 애정과 친화력은 특별히 뛰어나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고있으며 서방세계를 자주 충격에 빠뜨리곤 한다.

여기서 민중의 정신력을 최우선시하는 그분의 평도방식에서 주목되는 하나의 세부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적으려고 한다.

나는 얼마전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한 그분의 연설문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접하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혁명평도의 전기간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만사를 해결하여오셨다고 하시면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사상의 힘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을 호소하시었다.

그분의 연설문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것은 정치적내용에 군사술어를 접목시킨 독특한 문장구사였다.

례를 들면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 《당선전부문과 당조직부문이 배합작전》, 《군민협동작전》, 《대중적혁신운동의 힘있는 척후병》,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쓸어버리는 공격전》, 《사상의 미사일》, 《우리 당의 사상진지는 방어경이 아니라 공격형》,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사상일군들만 잘 준비되어있어도 강력한 정예군단들을 편성할수 있다.》 등이다.

우의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분이 반미대결전을 주도하시는 현시대의 뛰어난 정치군사가지심을 알수 있다.

목적실현으로 민중을 동원하는 전투적인 웅변력, 민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켜 목표를 단숨에 점령케 하는 그 열렬한 호소성은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지구에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신호같은 지휘관의 돌격구령소리를 방불케 한다.

연설문의 자자구구에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당당하게 맞선 용장의 기상과 당력, 배짱과 신념이 비껴있고 의도하시는 모든것을 현실에 가장 빈틈없이 가장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과 묘술을 사람들의 머리속에 즉시 직관화하여 현시시켜주는 특별한 매력이었다.

위인의 신념과 의지가 집약적으로 비껴있는 연설문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양양된 북국민의 정신력을 기반으로

정의의 위업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분의 평도방법에 감복하게 된다.

동시에 그분이 엮는 영원한 전승에로 향한 이 위대한 전진의 흐름을 멈춰세울수 없음을 확인한다.

하기에 북을 적대시해온 미국의 군사전략연구소의 연구원도 《북의 최고사령관은 미국이나 서방이 예측했던것보다 훨씬 로련하고 강력하며 전략적으로 매우 능숙하다.》고 평가하였다.

세상이 아직은 다 모르는 주체의 사상론이라는 위력한 무기를 높이 추켜들고 천만군민을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결집시켜 만만을 헤쳐며 영원한 전승을 위한 강성국가건설투쟁을 평도하시는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보는 세계인의 비상한 주목을 끌며 이제 수많은 전설들을 만들어낼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풀어주는 사랑이 없어 운명을 지켜 못준 마누라생각이 문득 떠올라 의사선생들의 질문에 멍청하게 서있기도 했다.

조선식건물로 웅장하게 서있는 인민대학습당을 돌아보며 북의 우월한 교육제도에 감복했고 고향집에 온것만 같아 음악실에 둘러 눈을 감고 조용히 노래 《교향의 봄》도 불렀다.

요즘 자료를 보니 내가 북조선을 다녀온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만도 북의 가는 곳마다에는 세계적인 마식령스키장이며 문수물놀이장, 은하과학자거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백성들을 위한 문화휴식봉사기지들이 수없이 일떠서다고 한다.

말그대로 조선속도이다.

조선속도에는 민중의 행복과 념원실현을 위한 잠재울것 없는 북의 열렬한 갈망과 신심과 락관이 함축되어있다.

국가가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처음 보는 이러한 사랑은 미국땅에서 제멋대로의 사고를 가진 나를 정돈시키고 감동시키기에는 너무나 충분하다.

이민위천을 정치리념으로 표방하는 북의 인덕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선군정치로 승화되어 불패의 실력을 떨치는 위대한 전승절형구소를 돌아보면서는 인간들의 삶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픔을 치유하는 병원침대에 돈 환관 안 들인 백성들이 누워 치료받는 모습이 나의 깊은 평흔을 흔든었다.

## 글을 마치면서

지난해 나의 북조선방문은 매우 시기적절했기였다.

서방세계에서 북에 대한 악선전이 끊기지 않고있는데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한 북의 실상은 그것과 다르기때문이다.

북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으면 돈 없어도 웃고 행복하다.

으리으리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만난 학생들의 재롱스러운 눈빛과 해맑은 웃음소리, 어른들을 초월하는

신비한 재주를 보며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들을 키우는 국가의 사랑에 감사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7성병원》이라고 불렀다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돌아보면서는 인간들의 삶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픔을 치유하는 병원침대에 돈 환관 안 들인 백성들이 누워 치료받는 모습이 나의 깊은 평흔을 흔든었다.



오는 4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7돛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제 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이로작에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의 유훈대로 민족의 분열을 끝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었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만대에 길이 빛나게 되었고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온 겨레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쌓아올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생애 온갖 고고와 실패를 다 바치시어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가장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에 자신의 한생을 강기로 바치시어 민족의 속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를 위해 온갖 로고와 실패를 다 바쳐오시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부터 민족앞에 분열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적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건설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그후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여오시었다.

영생불멸의 주제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으신 사상리론적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그 어떤 정세변화속에서도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든든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현명하게 평도하시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새 시대, 6.15자통일시대를 펼쳐주시어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빛나는 조국통일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어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오신 불변불류의 선군평도의 나

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실 굳은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돌경축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의 뜻깊은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제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돛이 되는 올해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일부문에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한평생 걸으셨던 선군길을 이어가시며 내외호전세력들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겨레의 가슴마에 조국통일에 대한 굳은 확신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상도 평도도 덕망도 풍모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한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겨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심으로 높이 모시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본시기자 최광혁

로작에서 밝혀주신 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제 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조국통일운동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로작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사상과 평도업적이 집대성되어있으며 조국통일 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이 제시되어있다.

로작이 발표된 후 지난 17년간 우리 민족은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6.15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

념아래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합쳐 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사적사변들을 이룩하였다.

분렬과 대결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의 철조망을 들어내고 북남사이에 철도와 도로가 련결되었고 활짝 열린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통해 수천수만의 각계층 인민들이 북과 남으로 오가며 민족의 통일열기를 고조시키었다.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금강산, 부산과 대구 등 삼천리방방곡곡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열려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를 고조시키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련대련합이 강화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촉진되었다.

## 조국통일 3대헌장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지금으로부터 17년전인 주제86(1997)년 8월 4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었다.

이날에 즈음하여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어 조국통일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신 아버지주석님과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 난관

과 에로가 겹쌓여있어도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이 있고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가 있는 한 겨레의 자주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 천도교인들은 겨레와 동귀일체하여 내외분렬주의 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조국통일3대헌장을 기어이 관철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 겨레의 소망인 민족의 통일속망을 기어이 앞당겨 실현하였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최석현